

순천, 사람·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친화도시 조성

LOCAL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순천시가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문화센터·공공진료소·실외놀이터 등 개소 반려견봉사단 운영·동물보호 캠페인 등도

순천시가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현재 순천시 등록 반려견은 약 1만8000마리로, 반려묘를 포함하면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2023년 호남권 최초로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개소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놀이실, 사육실

등 반려동물 이용 시설을 제공하며, 명남 시민학교를 통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반려동물의 사회화·예절 교육부터 독스포츠, 행동교정까지 반려견의 정서적·신체적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 교감캠프'를 운영해 반려견을 매개로 반려견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 펫터켓을 배우며, 교감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순천시 반

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는 지난 한 해에만 1200여마리의 유기동물을 진료했다. 올해는 진료 대상을 취약계층 반려동물까지 확대하고,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운영하여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실외놀이터는 지난 1일 문을 열어 한달간 임시 운영하고 이달 말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시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도심 속에 만들어진 야외놀이터는 문화센터와 동천 산책로를 연결해 반려동물 복합공원을 완성했다.

올해에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과 반려인으로 구성된 '반려견봉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견과 보호자 20여개팀을 선발해 산책 활동 중 지역을 순찰하며 생활안전을 살핀

다. 유사시에는 112 또는 카카오톡 일사단리 순천 신고 등과 연계해 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각종 행사에 참여해 펫터켓 준수, 동물보호 캠페인 등을 펼쳐 반려동물 문화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의 날'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입양을 독려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인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행사도 10월중 개최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고흥,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11일부터 읍·면 사무소 신청

고흥군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 대상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6만500여명이며, 총 1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읍·면사무소에 군청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1차 지급을 진행한다.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은 다음 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과 세대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장흥 '맛집 만들기' 추진 '청태전·장흥다움' 등 교육

장흥군은 오는 5월까지 '청태전' 품은 꽃차·티저트 과정과 '장흥다움' 장흥 맛집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농업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22회에 걸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태전' 품은 꽃차·티저트 과정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 청태전을 중심으로, 장흥 전통차의 일상 속 계승 및 생활 차문화 확대를 위한 블랜딩 교육이다.

총 10회에 걸쳐 계절별 꽃차와 청태전 블랜딩 이론 및 실습, 현장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장흥다움' 장흥 맛집 교육은 장흥 맛집 식문화 리더양성 및 농·특산물 활용 음식 체험 프로그램 개발 과정으로 실습 및 현장견학으로 12회 진행될 예정이다.

표고버섯, 한우, 무산김, 산채류, 키조개, 낙지 등을 이용해 장흥에서만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메뉴 개발 교육을 추진한다.

채식 한상, 표고버섯 장흥한상, 장흥한우 한상, 장흥바다 한상 등의 메뉴 정적으로 노벨문학 도시 장흥만의 특별한 음식 문화를 발굴할 계획이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영광 스포츠센터 개장...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 수중운동실·다목적체육관 등 주민 건강 증진

영광군은 최근 영광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중운동실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장식은 군 관계자 및 영광군체육회, 영광군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군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 126억원이 투입된 영광스포츠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광읍 단주리 218-2번지 일원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연면적 3055㎡) 규모로 조성됐다.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이 센터에 마련됐다. 1층은 재활운동이 가능한 수

중운동실과 기상에 관계없이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VR(가상현실) 스포츠 체험관이 있다. 2층은 요가, 에어로빅, 탁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실, 3층은 배드민턴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으로 구성됐다.

센터가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제일 군수는 "군민이 더욱 편리하게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영광군을 스포츠 선도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



구례 노고단배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구례군은 최근 '2025 구례 노고단배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U12 32팀, U11 28팀 등 총 60개 팀이 참가했으며, 선수와 학부모, 관계자 등 1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유소년 선수들은 뜨거운 승부를 펼치는 동시에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우정을 나누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진제공=구례군

"백운산 남부학술림, 명품 수목원으로 활용"

견본원 1925년 조성 100년 "소중한 지역 자산으로 키워야"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조성돼 100년 이 된 서울대남부학술림광양사무소(당시 연승림 광양 파출소) 견본원을 지역의 명품 수목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대남부학술림광양사무소와 광양 지역사회의 따르면 서울대 남부학술림 광양파출소에 견본원을 조성함에 우리나라(당시 남부연승림, 백운산 및 지리산 일원 1만6234ha)는 1912년 7월 일본 동경 제국대학 농학부가 학술활동을 위해 지금의 남부학술림광양사무소(당시 연승림

광양파출소) 내에 1920년 연승림 광양파출소 청사(6·25전쟁으로 소실됨)와 판사를 건립한 뒤 1925년 3월에 2500㎡ 면적에 대왕소나무, 졸참나무, 녹나무, 가시나무, 푸조나무 등 견본수로 162개 수종을 식재 하고 견본원으로 불렸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견본원은 1907년 수원농림학교(현 서울대농업생명과학) 시절 구내에 교재용 수종을 심기 시작한 것이 최초다. 이후 1925년 광양 연승림 광양파출소에 견본원을 조성함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견본원이 됐다.

이 견본원이 100년의 역사성을 지니게 되자 뜻있는 지역민들은 울창한 숲으로 변모한 견본원을 생태계 복원과 숲의 가치,

학술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목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목원산림기술사를 운영하고 있는 서희원씨(농학박사)는 "생태환경교육과 숲의 가치가 높아진 지금 수목원으로 확대 발전시켜 지역민들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학기 서울대남부학술림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고귀한 자산을 광양시가 필요로 한다면 상시 개방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주말에도 개방할 수 있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광양=김규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장성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준비 '순항'

내년 준공 목표...청소년 활동 거점 역할 기대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원회에는 청소년과 청소년·교육·건축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장성군의회의원 등 10명이 참석해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적정성, 사업추진 상황 등을 심의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장성 서부권에 해당되는 동화·삼서·삼계면 청소년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삼계고등학교 인근에 부지면적 3717

㎡, 건축면적 135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노래연습실, 영화감상실, 커뮤니티룸, 방과후교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총사업비 76억원 가운데 도비가 61억원을 차지해 군비 부담이 적다. 오는 2026년 준공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청소년문화의집 설계·건축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며 "서부권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6699@gwangnam.co.kr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낙산균
최초의 한국형 낙산균입니다.

VHOMÉ+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이 먹는 프로바이오틱스 모놀리더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이 먹는 프로바이오틱스 모놀리더

문의전화 1588-8529